

충청남도 시·군 명칭의 유래와 경역(8)

- 당진시 -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역(境域)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경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시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의 명칭과 경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시·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오늘날의 시·군 경역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명칭 유래와 경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도 이웃 시·군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당진시(唐津市)는 1914년에 당진군·면천군의 전부와 해미군의 일부 지역, 예산군의 일부 지역이 병합되어 당진군으로 출범하였다. 이후의 당진군은 1957년에 서산군으로부터 대호지면, 정미면이 편입되었고, 1973년에는 정미면 여미리를 서산군 운산면으로 편입시켰다. 따라서 현재의 당진시지역은 전통시대의 당진·면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진(唐津)은 백제시대의 벌수지현(伐首只縣, 혹은 夫只縣)으로, 신라 때에 당진현으로 개칭되어 혜성군의 관할현이 되었으며, 고려 때에는 현종 9년(1018)에 운주(漣州)지역에 속하게 되었고, 예종 때에 당진 감무를 두었다. 조선초기인 태종 13년(1413)에는 감무를 현감으로 개칭하면서 당진 현감을 두게 되었고, 1895년에 23부제가 실시되면서 모든 지방 고을을 군으로 통일하자 홍주부 당진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당진군(4등군)이 되었다. 그리고 1914년 군면 통폐합 때 면천군 등을 통합한 당진군이 되었다.

면천(漣川)은 본래 백제의 혜군(橈郡)이었는데, 통일신라의 경덕왕 16년(757)에 혜성군(橈城郡)으로 고쳐서 1018년(현종 9)에 운주(漣州, 후의 洪州)의 속현으로 하였으며, 후에 감무를 설치하였다. 충렬왕 19년(1293)에는 면천현 사람 복규(卜奎)가

합단(哈丹:원나라의 反賤)에 침입한 적병을 막을 때 공로가 있다 하여 면천현을 승격시켜 수령으로 지면주사(知沔州事)를 두었다가, 조선초기인 태종 13년(1413)에 면천군이 되어 종4품의 수령인 군수가 부임하였다. 이후 면천군은 1895년의 23부제에서 홍주부 면천군으로 편제되었고,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면천군(3등군)이 되었다가, 1914년에 당진군에 편입되었다.

한편, 신평(新平)은 본래 백제의 사평현(沙平縣)이었는데, 통일신라의 경덕왕 16년(757)에 신평으로 고치고 혜성군(檜城郡)의 영현으로 삼았다가, 고려의 현종 9년(1018)에 운주(運州, 후의 洪州)에 예속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홍주의 임내(任內)에 해당하였는데, 조선초에 폐현이 되어 현내(縣內)·신남(新南)·신북(新北)의 3개면을 구성하였다. 합덕지(合德池)에서 기원한 합덕현(合德縣)은 본래 덕풍현(德豐縣)에 붙여서 부곡(部曲)을 삼았는데, 충렬왕 24년(1298) 고을 사람 화자(火者) 황석량(黃石良)이 원나라에 들어가 공을 세우고, 원 황제의 신임을 받았으므로, 덕풍현(德豐縣)에 딸린 합덕부곡(合德部曲)이 합덕현(合德縣)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이 합덕현은 세조 때 폐현이 되어 홍주군의 합남(合南)·합북(合北) 2개면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신평과 합덕은 주읍(主邑)인 홍주목(洪州牧)과 덕산(德山)을 사이에 둔 월경처(越境處)로서, 당진현이나 면천군 소속이 아니었다. 그 뒤 1895년(고종 32)에 면천군(沔川郡)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에 당진군으로 편입되었다. 현재의 당진시 경역은 1914년 군면폐합 때 면천군의 22개면과 당진군의 8개면, 그리고 해미군의 일부 지역과 예산군의 일부 지역이 병합되어 새로운 당진군으로 출범한 것이다.